

公務國外研修結果報告書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05. 6. 23 ~ 6. 28(5박6일)
- 방 문 국 : 몽골
- 연 수 단 : 8명(의원6명, 공무원2명)

龜尾市議會

몽골 연수 결과 보고서



몽골 연수단 일행

이 연수결과 보고서는 2005년 몽골 연수단 전체의원이 공동작성 하였습니다.

목 차

I. 연수개요

1. 방 문 국
2. 연수목적
3. 연수기간
4. 보고서작성자(연수단)
5. 연수일정 및 주요 내용

II. 연수국 현황 및 주요방문지

- 몽 골
 - 울란바토르
 - 바양고비
 - 하르호린

III. 연수성과

공무국외연수보고서

I. 연수개요

1. 방 문 국 : 몽골

2. 연수목적

-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광활한 국토를 가진 몽골인의 삶을 직접 체험 비교함으로써,
-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족하고 공업도시로서의 투자가치 및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

3. 연수기간 : 2005. 6. 23 ~ 6. 28 (5박6일)

4. 보고서작성자(연수단)

연번	소속위원회	성명	비고
1	산업건설위원회	정성기 의원	
2	"	김대호 의원	
3	"	김익수 의원	
4	"	임경만 의원	
5	"	이정석 의원	
6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진 의원	
7	의정담당	배철현	
8	행정6급	지명구	

5. 연수일정 및 주요내용

일 자	출 발 지	도 착 지	방문지	주요내용	비 고
제1일 6. 23(목)	인 천	울란바토르	호텔투숙	· 인천공항 출발	
제2일 6. 24(금)	울란바토르	바양고비	간등사 자연사박물관 테렐지	· 문화유산보존 및 운영 · 관리실태 · 유목민생활 체험	
제3일 6. 25(토)		바양고비	바양고비사막 오아시스	· 사막자원 개발상태 · 유목민생활 체험	
제4일 6. 26(일)	하르호린	울란바토르	에르테조사원 하르호린 거북바위	· 몽골의 사원 등 건축양식 비교 · 도시공원 조성실태	
제5일 6. 27(월)		울란바토르	자이산전망대 이태준열사 기념공원 복드왕겨울궁전	· 도시계획 사례 · 불교유물 및 왕족 유품 비교	
제6일 6. 28(화)	울란바토르	인 천	기내숙박	· 구미로 이동	

II. 연수국 현황 및 주요방문지

□ 몽 골

기 본 현 황	
	• : 244
	• : 1,564,160km ²
	• : ,
	• :
	• :
	• :
	• : (tg) (1\$=1,093.54tg, 1tg=1.1~1.2)

: 2005. 6. 23 6. 28

: , ,

1) 역 사

<AC 1년 - 1900년 까지의 역사>

- 몽골은 징기스칸으로 인해 세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고 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원(元)나라를 세워 비로소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원나라(1279-1368년)는 순제를 마지막으로 1368년 한(漢)민족계인 명에 의해 멸망했고 그 후 몽골은 고비사막 너머로 쫓겨가서 13세기의 모습을 갖춘 채 신비한 고립국가로 남게 되었으며 이후 1616년에 성립한 만주계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 청나라는 비옥한 땅을 모두 빼앗고 몽골인들은 황폐한 초원지대로 밀려나 유목민으로서의 삶이 더욱 고착되었다.
1911년 한민족 계의 사람들이 청을 타도하고 중화민국을 세웠을 때 외몽골은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외몽골은 원래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외몽골은 러시아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국내의 혁명으로 힘을 쓰지 못하자 중국이 침공을 시작하였고, 결국 외몽골은 독립을 취소하였다. 동시에 러시아의 반혁명 세력도 침입해와서 라마교의 달라이 라마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수립하였다. 나라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외몽골은 러시아 혁명 세력의 원조를 받아 중국군과 활발 정부군과 맞서 싸워 1921년 수도를 점령하였다.

활불 정부군으로부터 정권을 인수받은 날이 7월 11일로 현재의 독립 기념일(나담)이 되었다. 1924년 11월에는 몽골 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독립을 선포함으로써 세계에서 2번째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1939년 이후에는 일본과 제 2차 대전에서 연합군 측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워 승리하였다. 1961년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1964년 중·몽 국경이 확정되어 내·외 몽골의 분열이 고착되었다. 1956년 체덴발이 인민혁명당 서기장이 된 후 당내 친 중국파를 숙청하고 친 소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힘써왔다.

대부분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국민감정은 썩 좋은 편이 아니지만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은 매우 깊다. 한편으로는 지난 70년 동안 소련 연방(USSR)의 사회주의 제도 아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 몽골인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 방식은 러시아를 본받은 서구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2) 지 리

- 몽골은 북쪽의 러시아와 동·서·남쪽의 중국 사이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심장이며 국경의 총길이가 8,161.8 km이고 총면적은 한국의 17배에 해당하는 1,566,500km²(프랑스,독일,스페인,포르투갈등,네덜란드,벨기에를 합친 면적)로서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국가이다.

또한 동서의 길이가 2,392km,남북의 길이가 1,259km이며 서쪽에는 1,500km에 달하는 알타이산맥이 위치하고 있어서 북쪽에는 산림이

많고 남쪽에는 사막 나머지는 평지가 공존하는 나라이다.(국토의 90%가 목초지,사막,산,10%가 산림)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타르가 해발 1,350m 전체 평균해발 1,580m의 고산지대로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알타이 산맥에 있는 해발 4,374m의 후이튼 산이고 가장 낮은 곳은 해발 552m의 후호 호수이다.

3) 기 후

- 몽골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인 건성 냉대기후(Foreal realm)지대에 속하여 연평균 기온이 -2.9c이다. 일년 중 6개월이 평균온도 0c이하이고 가장 추운 1월은 전국평균 -15c ~ -33c이다. 반면 가장 더운 시기는 7월이며 14c ~ 23c이다. 생활하기가 가장 좋은 계절은 여름부터 가을까지로 습기가 없고 상쾌한 날이 이어진다. 일년 중 맑은 날이 250일 정도이고 흐린 날은 9-23일 정도이다. 또한 평균 기온이 0c이상 되는 기간이 전국평균 170-190일 정도인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많아져 남부 및 동남지방은 200-215일 정도가 된다. 겨울은 낮에도 상당히 추우며 야간의 경우 -50c 내려 갈 때도 많다. 그러나 체감온도는 생각보다 춥지 않은데 그 이유는 습도가 낮아 건조하기 때문이다. 봄(4-5월)에는 돌풍, 사풍이 불거나 기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변화가 자주 일어난다. 몽골의 강수량은 매우 적으나 5월 중순경에는 비와 눈이 자주 온다. 연평균 강수량은 208mm로 매우 적은 편이다. 또 몽골의 담수량은 계절에 따라 매우 불규칙하다. 가장 추운 시기인 10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의 년 강수량의 8-10% 정도 밖에 내리지 않는다. 반면 여름인 6월에서 8월까지의 년 강수량의 67%-78%가 집중적으로 내린다. 일년 중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달은 7월이고 가장 적은 달은 1월이다. 사실상의 여름인 7,8월에 연간 강수량의 약 70% 내린다. 눈은 10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내리며 산간 지방에서는 5월까지도 내린다.

4) 종 교

- 전체 인구의 94% 정도가 티벳 불교인 라마교 및 미신을 믿고 있으며, 6%가 이슬람을 믿고 있고 있는데 신자의 대다수가 남서쪽에 살고 있다.

5) 주요민족

- 몽골족 90% 카자흐족 5% 전체의 약 90%정도가 몽골족이다.
몽골인들은 여러 개의 부족으로 나뉘는데 전체인구의 약 75%가 할하 몽골족이고 브리야트, 다리강가, 다르베트, 카자흐 몽골족 등이 있으며 가장 작은 종족은 주로 서쪽 끝에 살고 있는 투르크 민족인 카자흐족으로서 5%정도를 차지한다.
러시아인과 중국인들 소수도 몽골에 살고 있다. 그리고 약400만명의 몽골인들이 러시아 등 몽골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

6) 주요언어

- 현재 몽골의 공용언어는 할하몽골(khalkha momgol)어 이다.
지방에 따라 방언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터키(Turkic)계의 카자흐(kazakhs)어 등도 사용되고 있다. 90%이상이 몽골어(할하 몽골)를 사용하고 있으며 바양울기 등 카자흐족이 살고 있는 일부지역에서는 카자흐어와 몽골어가 혼용되고 있다.
- 제2외국어는 70여년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덕에 관료들이나 엘리트 세력 및 어느 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대개 30대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서구 자본주의의 유입과 더불어 영어가 그 자리를 대신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어가 종종 사용되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몽골의 문맹율은 20% 정도이다.

7) 경 제

- 몽골의 인구는 1980년에서 1990년까지 매년 2.5%의 성장을 계속해왔다. 국가전반의 경제의 어려움으로 1994년도에는 인구증가율이 1.3%로 떨어졌는데 경제가 회복이 되면 다시 인구증가율은 오를 전망이다. 몽골의 경제는 1980년대에는 3.5%로부터 9.4% 혹은 평균 6.3%로 꾸준히 성장해왔는데 이는 CMEA국가들과의 밀접한 유대관계에 의한 원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많은 국내외적인 압박의 결과 움츠리기 시작했다.

가장 큰 폭의 경제하락은 1992년으로 GDP의 9.5%까지 떨어졌다.

4년간의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 후의 몽골의 경제회복은 1994년에 시작되어 1995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때 GDP는 6.3%까지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 회복은 안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1995년 동과 캐시미어 및 몽골의 주요수출품목의 국제적 가격의 상승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1996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이들 품목의 가격하락과 함께 경제성장률은 1%미만으로 떨어졌다.

1996년 몽골 국립통계청에 따르면 1996년의 몽골경제는 1995년의 GDP성장률 6.3%에 반도 못 미치는 2.6%의 GDP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996년 ADB(Asian Development Bank)에 따르면 1997년과 1999년 동안에 해마다 3~4%의 GDP성장률로 몽골경제는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6년 경제감소의 주요원인은 산업수출(1995년의 14.8%에 비해 0.5%의 성장률)에서의 수익의 감소와 관광수입의 감소 등이다. 그러나, 농업분야는 1995년의 3.8%에서 1996년 4.2%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분야의 성장은 관광관련 서비스와 소매무역에 있어 높은 성장을 했다. 개인 서비스분야의 성장과 그에 영향을 받은 GDP의 성장은 같은 기간 서비스분야를 지배한 금융분야에서의 손실에 의해 무색해졌다. 1995년에는 현금 사유화 프로그램에 진전이 있었지만 1996년 전반기 동안에 별로 진전이 없었다. 새 정부는 현금 사유화의 가속화를 수행했다. 거시경제의 안정은 1995년 후반기에 강력한 정부의 행동의 결과로서 이루어졌다. 수출은 1995년 32%가 증가했지만 1996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수출은 1995년 동기간보다 13% 감소했다. 1995년 35% 성장한 수입은 1996년 전반기동안 21%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1996년 전반기 동안 6백만 달러의 무역적자와 1,500만 달러의 통화회계 손실이 있었는데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비록, 구조적 정책의 개혁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1990년부터 1994년동안 주요한 진전이 일어났지만 이러한 과정은 1995년과 1996년 상반기동안에는 그 속도가 감소되었다. 6.30일 선거 후 새 정부를 형성했던 민주연합은 개혁 대안으로 중요한 방안을 개선해왔다. 그 대안은 천연캐시미어의 수출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전기세와 난방세를 60% 올리며 석탄값을 45%, 석유값을 29~60% 인상하며 중앙은행과 커머셜뱅크의 운용에 관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이 포함된다.

이 새로운 법률로 몽골은행은 파산은행들을 정리하는 인수자로 지정되며 몽골은행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은행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적절한 조항과 행사력을 갖게 되었다.

- 몽골의 경제 개혁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개혁의 대안들을 발표해왔다. 현금사유화의 가속화/생산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30% 감소/세무행정 향상과 세금기반의 확충/외국투자의 증진/외국원조의 조정/사회보장제도의 목표 재설정 특히 교육과 보건분야의 고용을 줄임으로써 정부의 지출을 감소 1996년의 예상되었던 경제 성장의 둔화는 주로 33%의 국제 동 가격의 하락과 10%의 국제 캐시미어 가격의 하락의 결과 산업 생산의 성장률의 감소되었다고 본다. 관광수입의 하락, 전기공급의 분열, 금융분야의 심각한 파산문제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비율은 에너지 가격의 인상, 재정확충, 투그릭(몽골의 화폐단위)의 가치하락 때문에 1996년 하반기부터 증가하였다. 1996년도 전체 재정적자는 GDP의 12%에 해당하며 이는 외부원조의 유입에 의해 융자될 것이다. 1997~1999년에는 3~4%의 GDP성장률이 기대되고 인플레이션은 10~15%로 진정될 것이며 투자는 GDP의 23%로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통화예산과잉(currency budget surplus)은 GDP의 5%, 전체 재정적자는 약 10%로 예상된다.

다른 과도기적 경제와는 달리 몽골은 monobanking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1991년에 시작된 현대의 커머셜 banking분야로의 변천의 과정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현재도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FSPL(Bank 's Financial Sector Program Loan)하에 금융개혁 프로그램이 금융분야의 갑작스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은행과 IMF의 협력으로 새 정부에 의해 취해져 강화되어왔다. 국가전반의 실업률은 아르헨티나, 우즈, 호브트, 홉스걸 아 이막과는 달리 전년의 5.9%에서 1996년에는 6.5% 증가하였다.

여러 자료에 의하면, 빈곤은 몇년동안 증가되었다. UNDP는 1995년 중반쯤 도시거주자의 2/3, 시골거주자의 1/3이 빈곤층이라고 World Bank의 1996년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했다.

1996에 전체인구의 36%가 매달 7,671투그릭 이하의 월 소득을 가진 빈곤한 계층이다. 그리고, 계속적인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이 빈곤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공공임금과 월급은 인플레이션을 따를 수는 없지만, 반면에 개인 임금은 자제할 수 없이 공공임금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 개인소비는 일반적인 경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1995년 감소되었다. 1996년의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개인소비는 1995년부터 1996년까지 가계지출의 34%가 증가했지만 동기간 53%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상쇄가 되므로 개인소비는 감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몽골은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투자만 계속된다면 몽골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전체인구가 그 혜택을 누릴 것이다.

- 몽골의 GDP는 1994년 2.3% 증가한 다음 1995년 6.3% 성장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역전은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의 4년간의 감소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199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GDP는 0.8% 성장했으며 연말까지 3%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몽골은 이전의 많은 소비에트 경제권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생산이 떨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몽골에서의 경제하락은 대체적으로 다른 과도기적 경제권에 있는 나라들만큼 심각하진 않다. 농업분야는

전체 고용의 43%을 차지하며 1995년에는 수출의 20%를 차지했다. 1995년 농업생산은 1994년의 2.7%에 이어 4.2% 성장했는데 이것은 1989년 70%에서 1995년 83%로 증대된 가축분야의 향상 때문이다. 이러한 증가는 1995년말경 전체가축의 93%가 사유화가 됨으로써 증가된 것이다. 가축의 수는 1994년 2,680만 마리에서 1995년 2,860만 마리로 증가하였으며 1996년 말에는 3,000만 마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염소의 경우 그 숫자는 국제 캐시미어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91년의 전체가축의 20%로부터 95년도 30%로 늘어났다. 거대한 불모지와 반 불모지를 가지고 있는 몽골의 약한 생태계는 가축수의 무제한적 성장을 유지시킬 수 없다. 곡식은 1989년 이래 계속해서 감소되어 왔다. 1995년 경작지는 1989년의 경작지의 40%도 안 되는 372,600ha였다. 밀과 보리경작지가 89년과 95년 사이에 47%가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곡물생산의 회수율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렸던 정부의 농업가격제한 때문이었다. 이들 곡식의 경작지는 농업은행과 다른 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곡식대부금의 부족으로 인해 더더욱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1995년 아이막(우리의 도에 해당함)과 지방정부에 의해 거의가 통제되었던 회사들이 대규모 농사에 필요한 장비의 유지와 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가지고 있지가 않았다. 그래서, 1996년 밀 재배지는 320,000ha로 감소되었고 반면에 보리재배지는 2,700ha에서 4,200ha로 증가되었다. 또한, 채소재배지가 개인가족 단위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

8) 산 업

- 농업은 대규모적인 기계화농업을 실시하며 그 주체는 국영 농목장인데, 밀·보리·콩 등의 곡류와, 감자·토마토·오이·수박 등의 채소, 사과·귤 등의 과일이 수확된다. 중공업은 발전소를 제외하면 거의 미숙한 상태이고, 식품공업, 축산가공, 피혁가공, 직물제조 등 콤비나트를 포함하는 각종 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9) 정 부

- 정부형태는 인간의 권리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이 1992년 1월 과도의회에 의해 적용되어 새로운 헌법에 의거한 최초의 의회선거가 1992년 6월 28일 열려 국가최고회의가 1992년 6월 30일 형성되었다. 이때, 민주연합이 총 76석 중 50석, 인민혁명당이 25석, 보수연합당이 1석을 차지하였다. 국가최고회의는 몽골 국가권력의 최고 조직으로 76명의 의원들이 4년마다 비밀투표에 의해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 의해 선출이 된다.

현재 국가최고회의에는 7명의 기본위원과 2명의 특별위원이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우두머리로서 상징이다. 대통령은 국가 안전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국가 최고회의에 책임을 지며 4년마다 비밀투표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이 되며 한번 재임이 가능하다. 45세 이상인 모든 몽골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대통령 부재시에는 국가최고회의 의장인 수상이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다. 정부는 수상과 장관들로 구성이 되며 국가최고회의의 질의에 응답해야 하며, 자신들의 일을 국가대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상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가최고회의에 의해 선출된다. 수상은 장관들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하며 국가최고회의는 4년마다 장관들을 임명한다. 재판은 몽골의 대법원에 의해 통치되며 법원은 헌법질서를 보장하고 시민의 권리와 법적 관심을 보호하며 죄를 집행하고 법 행정의 해결에 의한 불만등을 감시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가최고회의에 의해 선출되며 부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된다. 이들은 정치활동이나 다른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몽골의 사법제도는 대법원, 아이막과 시·섬 및 구역의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6년 임기의 재판장과 재판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은 바꿀 수가 없으며 모든 법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몽골은 65년이상 공산당이라고 알려진 인민혁명당이 지배해 왔으며, 다른 모든 정당은 금지되었었다. 1990년 초 정치제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정당활동은 1992년 초 채택된 새로운 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보장되었다.

현재 인민혁명당, 사회민주당, 국민민주당, 보수연합당, 녹색당, 종교당, 국민당, 노동당, 르네상스당, 브르조아당 등 12개의 정당이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정당이 생겨나고 있다.

울란바토르

- 몽고의 수도인 울란바토르(ULAN BATOR)는 정치, 상업, 문화의 중심지이다.

울란바토르란 이름은 몽골어로 '붉은 영웅'이라는 뜻이다.

외국인들에 의해 흔히 UB로 불리는 울란바토르는 1950년대 유럽의 한 도시를 생각나게 하는 모습과 느낌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구 소련제 차들은 점차 최신형 일제 모델로 바뀌고 있다.



<

>

하지만 여전히 가축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염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발견된다.

또한 몽골의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서구화되어 세련된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함께 지나다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 몽골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소유했던 나라이다. 하지만 몽골에 이러한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역사유적을 비롯한 문화 관광자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유는 몽골족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도인 이곳 울란바토르에는 문화관광 요소로 라마불교사원, 예술박물관, 하라호름, 고비사막, 바이칼호 등의 볼거리가 있다.

- 울란바토르시의 공업화는 1934년 러시아의 원조로 공업 콤비나트가 건설된 데서 비롯하며, 제2차 세계대전 후 피혁, 제화, 모직물, 등의 공장이 중국, 체코 등 여러 나라의 원조로 그 면목을 일신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울란바토르에는 식육, 유제품, 제분 등의 식료품 공업 콤비나트가 러시아의 원조로 건설되어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몽골 유일의 종합대학인 울란바토르대학과, 농업 및 의학 등의 전문학교, 사범학교 등이 있다.

<울란바토르 명소>

○ 간 단 사

간단사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원으로서 17세기에 설립되어 1930년도에 있었던 긴 종교적인 억압 속에서 살아 남아 현재까지 몽골에서 유일하게 사원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현재 대략 150명의 수도사(라마승)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종교적인 식전은 연중내내 일반에 공개되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 >

○ 간단케그친렌 수도원

스탈린의 침략이 있기전인 19세기초에는 울란바토르에 약100여개의 티벳불교 사원과 수도원이 있었으나 스탈린의 침략으로 대부분의 사원,수도원이 파괴되었는데,간단테그친렌 수도원은 이곳을 침략했던 공산주의자들이 외국인에게 보이기위한 전시효과용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Gandan'은 완전한 기쁨을 떠나 위대한 장식이라는 뜻으로 울란바토르의 볼거리 중 하나이다.

○ 고비사막

고비(Gobi)사막은 10,000피트 이상의 높이로 치솟은 구르반사이칸(gurvansaikan)산맥 사이로 중국과 몽골의 국경을 따라 3,000마일, 즉 대략 5,000km의 길이로 몽골의 대평원을 감싸며 길게 뻗어 있습니다. 고비사막의 전체 면적은 약 530만ha에 달합니다.

고비 사막의 비행장에는 활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활주로는 아닌 평지에 그대로 착륙합니다. 그런데도 바퀴는 흙 속에 빠지지 않는데 그것이 곧 고비 사막이라 불리는 땅입니다. 몽골의 국토 중 71%가 초원이고 8%가 산림이



며, 그 나머지 21%는 몽골의 동남쪽에 있는 고비 지대입니다.

고비 사막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사하라 사막과 같은 생명 없고 찌는 듯한 더위가 있는 곳을 연상케 하는데 원래 '고비'란 몽골어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자갈성의 건조 지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코 황량한 불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갈이 많은 토질이고 비는 연간 500mm 밖에 오지 않으나 지하수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몽골의 고비는 다른 모래 사막과는 달리 모래 색이 아닌 다갈색의 대지입니다.

몽골의 고비는 중앙아시아의 유일한 거대한 사막 지역입니다. 모든 사막이 그렇듯이 고비 사막의 생태계는 해가 지날수록 수없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의 고비사막은 많은 희귀 동물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사막 위에 있는 독특한 창조물을 볼 때는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높은 모래 언덕 옆으로 붉은 절벽이 눈에 들어오고 또 다른 곳에서는 대평원의 방목지에서 천 마리가 넘는 떼를 지어 모여 있는 영양들, 아르갈리(Argali)라 불리는 중앙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구부러진 큰 뿔을 지닌 야생양은 세계 곳곳의 자연주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고비 사막은 낙타로도 유명한데 왜냐하면 고비 낙타는 중동, 아랍의 낙타는 등에 지방을 저장하는 혹이 하나인 것과는 달리 두 개의 혹이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며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비 사막에서는 옛날의 유적들 중에 공룡의 알과 뼈의 화석들로 가득한 보물 금고입니다. 1920년 후반에 발견된 공룡화석 박물관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줄 것입니다.

또한 고비 사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관은 별입니다. 고비 사막에서 밤하늘을 보면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가 어두운 지구를 위압하고 있는 것 같고 잡힐 것 같은 가까움과 선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만치르

만치르 역시 울란바토르 근교에 있는 경치가 무척 아름다운 곳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약 46km 떨어져 있는 이곳은 복드산 근처에 위치해 있어, 몽골의 산림을 마음껏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 숲을 거닐며, 바람 따라 풍겨오는 꽃향기와 메아리 따라 들려오는 풀소리가 당신의 마음 속에 잃어버린 아름다운 추억들과 서정적인 모습들을 다시금 찾아 줄 것입니다.

소나무와 낙엽송, 히말라야 삼나무·미루나무·자작나무 등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무들이 비탈진 산등성이에 가득하고, 그 나무숲에 숨어 있는 사슴·멧돼지·담비·늑대와 여우들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즈시르(Manzshir)라고 불리는 한 수도원에서는 매년가을 불교의 의식적인 탈춤이 열리고 있어 때를 잘 맞추어 찾는다면 몽골의 또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의 박제와 동물의 모피, 나무와 여러 식물들, 광석, 무덤에서 발굴된 신비롭게 생긴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여러분을 몽골의 또 다른 세계로 모실 것입니다

○ 복훗드항 박물관

1893년부터 1903년까지 10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2층 목조건물과 7개의 사원, 개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는 몽골의 마지막 왕인 Javzan Damba Hutagt 8세가 사는 겨울 궁전이었으며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몽골에서 8번째의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 받았던 그가 사용하던 유물과 유적들이 전시되어 있다

○ 수흐바타르 광장

중국으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한 Damdiny Sukhbaatar를 기념하여 1921년 시내 중심지에 만들어진 광장으로 시내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관광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약속과 만남의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광장을 중심으로 정부종합청사, 역사 박물관, 중앙우체국, 외무부, 울란바타르호텔, 국립오페라하우스, 몽골국립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등이 균형을 이루며 자리하고 있어서 시내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이면 쉽게 갈 수가 있다



<정부종합청사앞 광장>

○ 역사박물관

역사 박물관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인류가 처음 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이고 민족지(誌)적인 전시물들로 가득하다. 몽골의 여러 민족의 전통적인 의복과 유목민들의 물품 등 가장 신뢰할 만한 아이템들이 전시되어 있다.

자연사 박물관은 유목민들의 역사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한 곳이 될 것이다

○ 자연사 박물관

수흐바토르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이곳 역시 방문해 볼 만한 곳이다. 이곳은 몽골의 지질, 동식물, 몽골 근대사 유물 등을 전시한다. 이 박물관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고비사막에서 발굴된 타르보사우루스(Tarbosaurus), 사우롤로퍼스(Saurolopus) 등 2구의 공룡뼈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자이승 기념탑

울란바타르 시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인 울란바타르의 가장 멋진 전망을 제공하는 곳이다. 자이승 기념탑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념하며 전쟁영웅과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자이승 기념탑>

○ 잔라이식 사원

미그짓 잔라이식 사원은 지난 45년동안 닫혀 있었으나, 최근에 다시 열어 순례자와 여행자들에게 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미그짓 잔라이식상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20톤에 달하는 이 불상은 60년 전 종교 청산에 의해서 파괴된 잔라이식 불상과 정확히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 초이진 라마 사원

1904년에 완공되어, 1938년에 문을 닫은 후에 박물관으로 변경되었다. 중심 사원에는 강한 인상을 주는 독창적인 실크 상(象)과 가장 훌륭한 마스크가 전시되어 있으며, 또한 나무나 청동으로 된 가지각색의 신상(神像)을 볼 수 있다.

○ 칭기스후레

칭기스후레는 울란바토르에서 자동차로 반시간 거리에 있는 그림 같은 골짜기에 위치한 야외 활동을 위해 아주 좋은 휴양지입니다.

소나무로 덮여진 산들과 녹색 잔디로 덮인 목초지, 하이킹과 말타기에 너무나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의 전통 경기인 활쏘기를 위한 시설이 되어있고, 몽골의 또 다른 전통 경기와 놀이를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행객을 위해 '칭기스칸'이라는 영화에서 사용했던 지주나 짐마차 위에 지어진 거대한 '겔'들은 구경하실 수 있으며, 여러 공예품들이 전시된 박물관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유목민의 게르촌>

본 휴양지는 "후레"라고 불리는 몽골 사람의 계획에 따라 중앙에는 커다란 게르를, 그 주위로는 작은 게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앙의 큰 게르는 한 번에 4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몽골 전통 음식 등 특별 주문만 가능합니다.



< >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작은 게르들은 방문객들을 위해 편안한 휴식 공간을 위해 사용되어 집니다.

○ 홉스골

홉스골(Khubsgul)은 몽골의 북서쪽에 위치한 거대한 호수입니다.

몽골의 가장 신비로운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시사철 경이로움과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홉스골의 길이는 136Km,깊이는 244m에 넓이는 2,620km²에 달하여 조그마한 바다를 연상케 합니다.

홉스골의 면적은 경기도와 충청도를 합한 크기로 보기 전까지는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호수입니다.

몽골에서 명백히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이며, '몽골의 스위스'라고도 불리는 홉스골을 방문해 보시면 그 이유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정처럼 맑은 물이 한 곳에 모여 소나무로 덮인 높은 산들로 에워싸인 몽골의 가장 큰 호수와 오염되지 않은 숲은 최상의 공기를 드립니다.

생태계 적으로 몽골에서 가장 깨끗한 낚시터 또한 홉스골에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에 흥미 있는 분들은 이곳의 북쪽 지방에 거주하는 '순록 사람'을 방문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순록을 타고 또 기르며 티피(모피로 만든 아메리카 인디언의 원뿔형 천막)에서 생활합니다.

단지 맑은 물과 맑은 공기만을 접할 수 있는 이곳의 언덕에서 호수를 내려다보며 침묵의 소리에 귀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처음으로 발을 내디딜지도 모를 나무숲에서 하이킹을 즐기고 수정처럼 빛나는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수영을 하며 인공의 때가 묻지 않은 그 자연스러움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호수의 아름다움으로 한결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정처럼 맑은 물은 소나무로 덮여진 산으로 둘러 쌓여있으며, 홉스골 호수에는 연어와 그 외의 물고기가 매우 풍부할 뿐 아니라 주변지역 또한 고라니와 사슴과 야생동물들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로 가득합니다.

○ 테렐지

몽골에서 실제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이곳은 바위산과 드넓고 아름다운 초원 그리고 강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몽골을 방문한 여행객이 필수코스로 여기는 곳이며 몽골을 몇 번이나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라도 두세 번씩 찾게 될 만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 >

여름에는 각종야생화와 여러 가지 많은 들꽃들이 초원에서 피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테렐지에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설악산 계곡의 청수만큼 맑은 물이다. 여름에도 밤에는 추운 날씨 때문인지 발을 담고 있기가 차가울 정도로 시원하고 맑은 물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바위산의 계곡을 따라 흐르는 냇물을 보며 1~2시간 정도의 승마를 즐길 수 있으며, 공원내 숲 속에서 돌 훈제식 양고기 등 몽골 전통식 바베큐를 야외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이곳에서 보는 거북바위는 자연의 걸작품이다.

거북바위는 햇빛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연출하는, 자연이 창조한 거대한 걸작품이다.



<거북바위 전경>

이곳까지 올라가는 등정은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다. 또한 공룡화석들이 많이 발굴되는 나라인 몽골의 테렐지국립공원내 공룡공원을 돌아보고 전통가옥인 하얀색의

겔에서 말 젓 요구르트(타라크)와 빵 그리고 몽골 전통이 버터와 치즈 등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전통 가옥 겔에서 누워보는 밤하늘의 별들은 매우 아름답다.

이 지역에는 곳곳에 켈, 코지, 게스트룸 등 다양한 형태의 리조트와 현대식으로 지은 작은 호텔도 있다.

몽골 유목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

그 중 마유주는 말의 젖으로 이용해 만든 것으로 독특한 맛이 있다.



<말 젖으로 만든 술>

사례연구 : 몽골의 천연자원 이용방안

○ 개 요

- 국토면적 : 1,567,000km²(한반도의 7.4배, 남한의 15배정도)
- 인 구 : 244만명
- 주요자원 : 석탄, 구리, 원유, 폴리브덴, 텅스텐, 주석, 니켈, 아연, 금 등

※ 세계 10대 자원부국

- 국토이용 : 목축지(80%), 산림(10%), 경작지(1%), 기타(9%)
- 행정단위 : 아이막(도) → 솜(군) → 박(면)

※ 몽골에는 21개의 아이막과 348개의 솜과 박이 있다.

○ 사례내용

- 광활한 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적음
- 풍부한 천연자원을 개발할 기술력과 노동력 및 자본이 부족함
- 넓은 초지를 이용한 오랜 유목생활의 타성에 젖어 지하자원 개발 의욕 저하
- 기초자원의 활용부족

○ 연구결과

- 공적 및 민간차원의 교류확대로 지하자원 개발권 확보
- 앞선 개발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개발주도권 확보
- 풍부한 노동력과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 한국인의 마음과 자본의 투자가 필요
- 기초자원(지하수, 하천수)의 이용은 유목이 아닌 정주하면서 목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소류 등의 농산물 생산의 가능성이 무한함
- 건장한 체력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기술투자 확대 필요

사례연구 : 몽골국제우정마라톤대회(제3회)

○ 개 요

- 대회명칭 : 제3회 몽골국제우정마라톤대회
- 대회일시 : 2005. 6. 25(토) 16:00 ~ 22:00(백야마라톤으로 진행)
- 대회장소 : 테를지 국립공원내(울란바토르 근교)
- 참가인원 : 1,400명정도(한국 300명, 몽골 1,000명, 기타 제3국 100명)
- 대회종목 : 5km, 10km, 하프(21.0975km), 풀코스(42.195km)
- 주 최 : (사) 한·몽 문화교류진흥원
- 대회특징
 - 세계최상의 청정지역의 광활한 초원에서 열리는 대회
 - 평균해발 1,500m의 고지에서 자기한계에 도전하는 달리기 행사
 -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한 순수 민간차원의 문화행사

○ 사례내용

- 오랜 유목생활로 달리기를 싫어함
- 몽골의 유일한 마라톤대회
- 순수 민간차원의 문화행사

○ 연구결과

- 기업 또는 민간차원의 문화행사 확대 필요
- 타시군(김천시 등)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방법 등 도입



<우정마라톤 출발점>

Ⅲ. 연수성과

-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이며 글로벌시대로서, 제한된 지역에서 외부와의 교류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발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보다 정치·경제, 문화·복지 등 다방면에서 앞선 선진국의 연수도 필요하지만 뒤떨어진 후진국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여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수에 임하였다

- 그러나 한정된 짧은 일정과 언어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보다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연수가 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60~70년대의 모습인 몽골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고 나름대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몽골의 사례조사와, 현장 체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 향후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몽골의 국가환경은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광활한 국토 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며,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지만 기술인력과 자본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자원을 외국인이 개발하여 역으로 수입하여 쓰고있는 실정이며 기초자원(지하수 및 하천수)조차 활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드넓은 초지를 바탕으로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인들로서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정착에 필요한 지하수 개발 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자원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그 넓은 초지가 유목민들이 개척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건조한 기후와 적은 강수량과 사질토에 가까운 토지로 인하여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생겼지만 안타까운 것은 기후의 변화에 따라 점점더 초목이 줄고 사막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 및 도·시차원은 물론 민간차원의 활발한 교류와 앞선 개발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기술력과 부지런함을 더한 자본의 투자로 지하자원은 물론 개발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현지의 값싼 노동력과 수자원을 활용한 개발로 유목에서 벗어난 정목으로 유도하고 수입 일변도인 농산물 및 채소류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으로써 동북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희망도 차츰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